

공연평 전태일 열사 20주기 추모기념 노래판국 '꽃다지2'

“골리앗은 결코 외롭지 않다”

“끝내 살리라. 노동자 한 가슴. 해방의 땅 금남로에 되살아 나리라. 살아서 춤추리라. 죽음을 딛고 노동해방 그날에 꼭 살리라”

노동해방열사들의 신위가 입장하고 비장한 노래소리가 가슴을 저미며 파고 든다. 관중들의 합성은 고요로 변해 버렸다. 순간 모두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 전태일, 이땅의 영원한 노동해방의 불꽃으로 살아 펴날뻔하는 이름. 전태일, ‘이땅에 전태일 아닌 것들은 모두 가라’고 자랑차게 외치는 이름 전태일 열사. 그 전태일 열사의 후예들이 열사의 20주기를 추모하며 민중연대를 위한 노래판국 ‘꽃다지 2’를 마련했다.

꽃다지란 본래 ‘들꽃의 묶음’이라는 말로써 공연에서는 천만 노동자 및 민중들의 단결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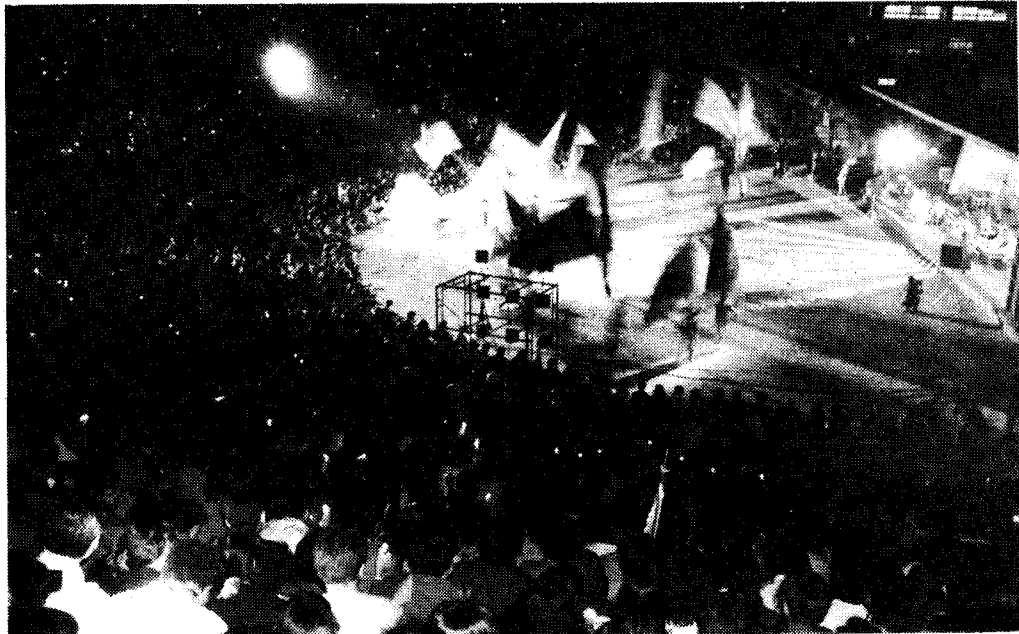
모두 8개마당으로 구성된 ‘꽃다지 2’는 먼저 관중들의 집단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노협과 업종협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판얼기로 시작하여 노동열사 초혼굿으로 이어졌다. 살풀이, 하지만 그것은 춤속에 있지 않았다. 지그시 입을 얹다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서린 한, 죽음으로 동지를 내몰아야 했던 그 한은 바로 그들의 역전 무대에 켜져 있었다.

3마당부터 6마당까지는 지난 1년동안 전개되어 왔던 노동운동의 모습, 투쟁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보다 발전된 투쟁을 이끌어 내기위해 준비된 마당이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해방의 열정과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힘으로, 고

립·분산적 투쟁을 극복하기 위해 결성된 지난 1월의 ‘전노협’ 출범의 감격을 되새겨본 마침내 전노협으로, 올해 노사단체협상의 큰 특징중의 하나인 노동자 복지문제의 해결, 특히 내일을

에 의해 맞이하게 되고 있었다. 5마당 ‘노동현장은 지금’에서는 민중방송국을 설립하여 전국 방송망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업종 노조의 투쟁을 한창소에 모아 재현해 주었다. 방송민주주의의

이 마당은 개별사업장 속에서 진행된 투쟁을 한 곳에 모아 하나의 전선으로서 결집해 내려는 의도는 충실했을지는 모르지만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어 아쉬웠다. 이시기 민중운동 전영



뚜렷한 기획의도 치밀한 구성 돋보인 작품 노동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대에 기여

갖고 싶은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설움, 그리고 분노를 형상화시킨 신곡 ‘달동네의 꿈’ 등이 그것이다. 노동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까지 파고 든 노조파괴의 서술, 노동자들의 소박한 소망마저도 노·노대립 조정이라는 탄압술책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 결국 보통사람들의 꿈은 보통사람

발아래 막대한 공권력의 투입에 맞서 전개되었던 KBS파업투쟁, 외국자본가의 본거지에 뛰어 들어 민족자본과 노동해방의 기치를 높이 올린 피코 이종마들의 투쟁,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강요,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감사 등 정권과 자본의 각 개격파괴 탄압에 맞서 진행된 90 임투상항보고 등의 내용을 다룬

은 대대적 탄압에 맞서 수세적 방어에만 급급한 면도 없지 않으며 울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냉철히 되짚고 넘어가야 했을 것이다. 노래판국 ‘꽃다지2’의 압권은 현대노동운동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에 따른 전노협 총파업을 다룬

6마당이었다.

노조집행부의 중요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결정되었을 때 ‘야! 드디어 파업이다!’라고 외치며 한창차, 신명나게 휘둘러치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새삼 ‘파업은 노동자들의 축제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잠시 후 고막을 찔듯 듯한 지랄탄발사음과 함께 무대는 연막탄의 뿌연 연기에 숨어 버렸다. 공권력 투입이다. 그 연기속에서도 현충 노동자들의 투쟁은 각목춤으로 빛나고 그리고, 외로운 늑대 ‘골리앗’ 하지만 골리앗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관중석 여기

쟁은 사다리와 노천극장 지붕을 이용한 구성도 신선했지만, 노동운동의 참체기를 뚫고 타올랐던 투쟁의 불기둥이었기에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인 7·8마당은 일말의 아쉬움을 남기며 끝을 맺었다. 11월 노동자대회 등 11월 투쟁의 열기를, 몰아 내고 민중연대의 결박함을 선전하기위해 마련된 이 두 마당은 전노협과 전대협 대표 연설과 함께 노래 부르기까지 끝을 맺었다. 모두가 가슴 벅차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체감은 느낄 수 있었지만 민중연대란 부분이 두 대표자의 연설로서 일면 기계적으로 처리된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연대’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장난 아닌 실천이기에 모두의 건투를 빌어본다.

꽃다지2는 비교적 기획의도도 뚜렷했고 공연양식도 좋았다고 생각된다. 질적·양적으로 발전된 현장에서의 노동자 문화를 수용하여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발전전망을 고려한 종물진법의 개발과 풍물과 노래와의 결합 강화 등은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충실했다. 욕심이라던 말마전 열렸던 ‘노동자 가요제’ 등에서 볼수 있듯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현장속의 문화일꾼들을 공연의 주체로서 묶어 세웠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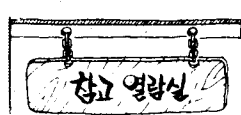
공연은 끝났지만 노동자들의 노래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전노협·지노협·업종협의 깃발을 앞세운 그들은 노천극장에서 한마당을 거쳐 교문에 다다를때까지 서로 서로 어깨를 걸고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노래는 원인이 투쟁의 무기이다. 그들에게서 다시금 전태일 열사의 절규를 듣는 듯 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여 말라!!! 사방을 내리두든 어둠속에서 노동 새벽의 기상을 느낀다.

◇꽃다지 2 공연은 노동운동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온 노동자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꽃다지 2’ 공연장면)

〈문화부〉



역사주의

람케(Rauke)를 대표로 하여 이루어진 역사주의의 인식과 방법론을 총체적으로 지칭한 말이다.

넓은 뜻으로 역사주의는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문화현상과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유체계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헤겔·마르크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역사주의는 역사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대신에 역사에서의 개인의 의지나 국가의 결정을 더욱 중시하는 역사인식이나 서술, 또는 연구태도를 말한다. 계몽주의 사가(史家)들은 이성에 기초한 보편성을 강조하였고 마르크스나 헤겔 등은 어떤목적에 향해 진행되는 역사의 필연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주의적 태도와 다르다. 또한 개인의 역할보다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측면이나 장기적 역사기간의

19C 역사학의 인식과 방법론 총체

교활을 중시하는 사회사나 전체사 또는 구조사학의 주장과도 구별된다.

독일에서 주도적으로 형성된 역사주의가 국가를 중시하고, 그 연구영역이 정치영역을 주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그형성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국은 일찍이 시민사회에 기초한 근대 국가를 성립시켰고, 프랑스는 사회와 국가의 긴장을 통해 나름대로의 역사발전론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독일은 1871년에야 갇힌 통일국을 이루었고, 앞서의 두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국력의 신장이 제일의 과제였다. 그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 우위의 사상이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역사연구국가나 정치를 주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역사주의는 또한 개별성,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보편성과 보편성을 갖는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인문과학의 존재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요컨대 역사는 유형적·반복적은 있지만 개별적·반복은 없다는 것이다. 그점에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뒤에 출현할 상대주의의 길은 예비했다고 보겠다.

이 석 우 <문리대교수·사학>

◇우리 의학의 역사◇

우리 민족의 생성과 발전, 흥망과 쇠퇴와 함께 우리 교유의 의학은 항상 우리 민족의 삶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또한 그것은 수천년이래 동양의약계에 있어 독특하고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이 책은 고대국가 시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질병에 대한 우리 민중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제도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민중사적 시각에서 철저히 조명하고 있다. <정민성 지음·학민사간>

◇예지각 동독문학선◇

국내 최초로 동독문학선이 출간되었다. 회고록에서 르브, 문학, 소설에 이르는 일곱권의 ‘동독문학

선’은 그동안 베를린 장벽에 가리워졌던 동독의 현실과 문화를 확연하게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지각 간>

◇반민자당 선언◇

민정, 민주, 공화 3당은 왜 합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오늘의 시점에서 3당합당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책은 3당합당의 세 주역으

신간안내

로 대표되는 노태우, 김영삼, 김중철의 합당시 정치적 입장과 장기집권 구도, 대권전략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6월항쟁 이후 분출된 각계각층의 민주화요구와 정의경제 실현을 바라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불만을 가진 기독교 세력, 공채발들의 기독교 유지가 3당합

당의 숨겨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영수 지음·학민사간>

◇현대일본의 역사인식◇

일본 가나가와대학 교수인 재일교포 2세가 쓴 책이다.

2차대전 전후 일본 식민주의의 정신구조, 재일 한국인의 삶



의 조건, 교과서 문제 등 현대 일본의 교육의 교육·사상·민족·역사의식을 다룬 논문모집이다. <윤진자 지음·한길사간>

문화단신

군선 특기 서예전 개최

예술의 전당 서예관이 한국 서예사의 체계적정립을 위해 기획전의 하나로 오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조선후기 서예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예문인화 1백25인의 작품 1백70점을 선보인다.

‘유럽 영화 3백년展’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원과 한국·프랑스 문화에술협회는 오는 12일까지 잠실 롯데백화점 미술관에서 ‘프랑스 및 유럽영화3백년展’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유럽영화의 황금기인 17세기부터 19세기의 서양 미술사의 기록속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 81명의 작품 88점을 전

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유럽영화 3백년展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어 미술학도와 애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소중한 관람의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전시기간중에는 프랑스로부터 초빙한 전문미술 감정의 설명회(감상, 감정, 가격)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처:735-5429)

오디오 문화공간 회원모집

‘오디오 문화공간’은 현대의 영상문화시대에 상응하는 영상문화의 장(CINE-CLUB)을 마련하여 영화를 사랑하는 순수영화 애호인을 위한 조정기 영화 감상회 △영화교실 강좌 △생각형상(사진, 비디오)제작실습 강좌를 개설 하고 참가회원을 모집중이다.

회원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8일까지 가입비 5만원(3개월분)과 함께 오디오문화공간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588-9697)



“나누는 손길이 있어 더 넉넉한 우리들의 삶”

“서울 큰 아한테 땀땀 부친다더니 나라는 쫓았는가?” 가슴엔 가지지 않은 얼굴로 안부를 물어오는 이웃의 따뜻한 말에서 울해도 포근한 겨울을 기대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참깨도 털어놓고, 호박·가지도 말려두고, 햇곡식으로 떡이라도 넉넉히 빚어 힘들 때마다 시를 함께하며 스스로없이 도와준 이웃에게 인심도 전내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한해는 작은 인정을 나누는 손길 속에 정들어 갑니다.

씨뿌리고 애써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저 들관앞에서 다시 씨뿌릴 봄을 기약하는 우리 부모들의 삶—오늘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이 남아있는 뿌리이며, 서로 아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끝없는 사랑의 터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서, 이 땅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며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